

ELS 상장 재추진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12월 1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12.17일 「ELS 상장 재추진... 투자자 안전판 키운다 [3년만에 꺼낸 ELS 상장]」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을 추진한다. 장외파생상품인 ELS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금융위는 홍콩H지수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ELS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H지수 사태로 불완전판매가 도마에 오른 만큼 장외파생상품을 장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확보해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ELS 상장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정종현 (02-2100-2654)